

가톨릭대 2019학년도 인문 2번

✎ (나)와 (다) 각각의 입장에 따라 (가)에 제시된 관행을 분석하시오. (띄어쓰기 포함 500~600자 / 40점)

(가)

흥부가 관청으로 들어가니 호방이 문을 열고 나오다가 말한다. “박 생원 들어오시오.” “호방 뵈 지 오래군요.” “어찌 오시었소.” “식량이 부족해서 쌀 한 섬만 빌려 주시면 가을에 착실히 갚을 테니 호방 생각은 어떠신지요, 허허.” “박 생원, 품 하나 팔아 보시오.” “돈 생길 품이라면 팔고말고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고을 좌수(座首)*가 병영 영문(兵營營門)*에 잡혔는데, 가서 좌수 대신 곤장 열 대만 맞으면 한 대에 석 냥씩 서른 냥을 받을 것이요. 말 타는 비용까지 닷 냥 제시했으니 그 품 하나 팔아 보시오.” “돈 생길 품이니 가고말고요. 매품 팔러 가는 놈이 말 타고 갈 것 없고 내 발로 다녀올 테니 그 돈 닷 냥을 먼저 나에게 주시오.”

* 좌수 : 조선 시대 지방의 자치기구인 향청의 우두머리

* 병영 영문 : 병마절도사가 있는 관아

(나)

인간이 해서 안 되는 행동 중에는 공권력을 사용해서라도 금지해야겠다고 결정한 행동들이 있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 결정들은 아무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하여 법률의 형식으로 대중에게 알려야 한다. 이렇게 법률로 정해진 금지된 행동들을 범죄라고 하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 부과되는 제재를 형벌이라고 한다.

국가가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형벌은 가해자를 응징하는 효과가 있다. 둘째, 형벌은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즉 형벌을 미리 알려 주면 일반 국민은 형벌이 무서워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형벌은 앞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범죄자를 교화하는 효과가 있다. 오늘날 형벌은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 효과를 모두 고려하여 부과된다.

(다)

『자유론』이라는 이 책을 통해 나는 하나의 매우 간명한 원칙을 주장한다. 이 원칙은 강제와 통제의 방식으로 사회가 개인을 다루는 사안에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여기서 강제나 통제는 법적 처벌의 물리적 힘 혹은 여론을 통한 도덕적 강권을 통해 이루어진다. 원칙은 다음과 같다. 그 구성원이 누구든 간에, 문명사회에서 어떤 한 구성원의 행동의 자유에 개인적 집단적 간섭이 허용되는 유일한 경우는 오직 한 가지, 자기방어이다. 다시 말해, 어떤 구성원의 의지를 무시하고, 한 사회가 그에게 정당하게 힘을 행사할 유일한 근거는, 그의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구성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해악의 방지이다. 당사자인 그에게 도움이 되더라도, 예컨대 그의 도덕적 선(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간섭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에게 더 좋다는 이유로, 현명한 선택이라는 이유로 그를 그렇게 행동하도록 하거나 삼가도록 강제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없다. 개인의 행동들 가운데 개인이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유일한 행동은 타자와 관계하는 행동이다. 자신에게만 관계하는 행동 안에서 개인은 절대적으로 독립적이다. 개인은 자기 자신, 즉 자신의 몸과 정신에 대하여 주권자(主權者)다.

나란히 걷기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 (나)와 (다) 각각의 입장에 따라 (가)에 제시된 관행을 분석하시오. (띄어쓰기 포함 500~600자 / 40점)

[독해]

(가)에 제시된 관행: 매품 - 다른 사람의 처벌을 대신 당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 행위

(나) 형벌의 목적: 1) 가해자 응징, 2) 범죄 예방, 3) 범죄자 교화

(다) 다른 구성원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모든 행위는 존중되어야 한다.

[논리평면] 가치추론

	전제	결론	가치
(나)	형벌의 목적	범죄자 응징&교화, 범죄 예방	G
(가)	홍부의 매품 거래 ⇒ 범죄한 죄수를 응징&교화 못하고, 범죄 예방도 X		b

	전제	결론	가치
(나)	다른 구성원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행동	존중되어야 한다	G
(가)	홍부의 매품 거래 ⇒ 다른 이에게 해악 없음	존중되어야 한다	g

[예시답안] 519자

제시문 (가)에 나타난 관행은 매품이다. (가)에서 홍부는 범죄를 저지른 죄수를 대신하여 홍부가 형벌을 당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계약을 했다.

이러한 홍부의 행동은 제시문 (나)에 의하면 타당하지 못하다고 분석된다. (나)는 형벌을 통해 다양한 목적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목적으로는 첫째로 범죄자를 응징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로 범죄자가 교화되어야 하며, 셋째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홍부가 죄수의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써 범죄자인 죄수에 대한 응징이 적절히 이뤄지지 못했고, 죄수를 교화시키지도 못했으며, 이러한 거래 때문에 죄수와 같은 죄인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줄이지도 못했다.

반면,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 보면 홍부의 매품은 존중받을 수 있다. (다)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구성원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한 그의 행동에 간섭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구성원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홍부의 매품 또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 출제의도]

- (1) 제시된 이론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여 파악하는 분석력을 평가한다.
- (2) 고전 지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지 독해력을 평가한다.
- (3) 반대되는 사항을 비교대조의 방식으로 전개할 수 있는지 논리 전개력을 평가한다.
- (4) 적절한 개념과 논리를 이용하여 조리 있게 나타낼 수 있는지 표현력을 평가한다.

[대학 문항해설]

- 제시문 (가)는「흥부전」에서 흥부가 매품을 팔기로 약속하는 장면이다.
- 제시문 (나)에는 형벌의 정의와 응징·예방·교화라는 형벌의 세 가지 효과가 설명되어 있다.
- 제시문 (다)에는 개인집단의 자기방어(타인에 대한 해악 방지) 경우에만 한 개인의 자유에 대하여 개인적·집단적 간섭을 허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시되어 있다.
- 제시문 (나)에 제시된 형벌의 관점에서 제시문 (가)의 매품은 세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관행이며, 제시문 (다)에 제시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주장에 따르면 타자에게 해악을 끼칠 근거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비난할 수 없다.

[대학 채점기준]

1. 기본사항

- (1) 8등급으로 채점 : A+, A0, B+, B0, C+, C0, D, F ※ F는 0점
- (2) 내용 80%, 형식 20%로 구별해서 채점
- (3) 내용이 F이면 형식도 F로 채점
- (4) 100자 미만인 경우, 내용과 형식 모두 F로 채점
- (5) 동일한 문항을 채점위원 2인 1조로 각자 채점
- (6) 2차 또는 3차 채점이 필요한 경우
 - ① 한 채점위원이 F로, 다른 채점위원이 F가 아닌 다른 등급으로 채점한 경우
 - ② 두 채점위원의 등급이 3등급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 3등급 차이가 나는 예 : C0와 B+ / D와 C+ ※ D=D0
- (7) 2차 또는 3차 채점의 방법
 - ① 1차 채점의 결과가 (6)에 해당하는 경우 두 채점위원의 합의로 2차 채점 실시
 - ② 2차 채점한 결과가 (6)에 해당하는 경우 3차 채점 실시

③ 3차 채점은 출제위원을 포함한 새로운 채점위원 2인이 실시하되, 1차 채점에서의 높은 등급과 낮은 등급 사이의 등급을 부여

(8) 제목이나 이름 등의 표기된 경우의 처리

① 수험생의 신원을 유추하게 하는 이름 등의 정보가 답안과 별도로 표기된 경우, 내용과 형식 모두 F로 채점

② 수험생의 신원을 유추하게 하는 이름 등의 정보가 답안 속에 자연스럽게 노출된 경우, 형식 2등급 감점

③ 제목을 단 경우, 형식 2등급 감점

2. 내용

● 채점 방향

(1) (가)의 매품에 대해 (나)의 형벌의 효과가 발생하기 힘든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2) (다)의 타인의 자유에 대한 간섭의 원칙에 따라 (가)의 매품에 대해 간섭할 수 없음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 채점 포인트

(1) 채점 방향에 제시된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였고, (가)의 매품 관행을 (나)와 (다)의 관점에서 각각 비교대조의 방식으로 분석하였을 경우 내용점수 A등급 이상 부여

(2) (가)의 매품에 대해 (나)의 형벌 효과를 잘못 적용한 경우: 1~2등급 감점

(3) (가)에 대한 (나)의 분석에서 응징, 예방, 교화 효과의 누락 정도에 따라 1~2등급 감점

(4) (가)의 매품에 대해 (다)의 원칙을 잘못 적용한 경우: 1~2등급 감점

(5) (가)에 대한 (다)의 평가 근거로 자기방어(타인에 대한 해악 방지)를 활용하지 못한 경우 : 1~2등급 감점. 다만 자기방어를 사회의 자기방어로 보고 매품이 허용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풀어낸 경우 감점하지 않을 수 있음

3. 형식

(1) 문장 구성, 표현, 표기, 문단 나누기 등이 부적절한 경우, 정도에 따라 1~3등급 감점

① 문장 구성이 자연스럽지 않거나 표현이 부정확한 경우

② 맞춤법, 원고지 사용법 등의 잘못이 있는 경우

(2) 분량

① 600자 초과 : 1~2등급 감점

② 450자~500자 미만 : 1등급 감점

③ 400자~450자 미만 : 1등급 감점

④ 350~400자 미만 : 3등급 감점

⑤ 350자 미만 : F

[대학 예시답안] 576자

(가)에 제시된 관행은 매품이다. 흥부가 양식이 부족하여 고을 좌수를 대신하여 곤장을 맞고 서른다섯 냥을 받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나)에는 범죄에 대한 공적 처벌로서 형벌의 필요성과 효과가 기술되어 있다. 하지만 좌수에게 가해진 형벌은 매품으로 인하여 의미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첫째, 형벌은 응징 효과를 추구하지만, 좌수에게 장형(杖刑)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만족할 만한 응징이 되지 못한다. 둘째, 재력을 이용하여 형벌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로는 예방도 기대하기 힘들다. 셋째, 돈으로써 형벌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자가 범죄를 반복하지 않으리라는 교화 또한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나)의 입장에서는 (가)의 매품을 허용할 수 없다.

(다)에 따르면, 개인·집단은 자기방어(타인에 대한 해악 방지)일 경우에만 타인의 행동에 간섭할 수 있다. 개인은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 자신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있는 주권자인 것이다. 흥부와 좌수의 매품 거래는 자발적이었고, 서로 도움이 되며, 다른 누구에게도 해악을 끼치지 않았다. 따라서 (다)의 입장에서는 흥부·좌수의 거래를 용인할 수 있다.